

< 제 5 장 >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일부 고대 사본에는 3절 후반의 “물의 움직임”과 4절의 천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NIV, NRSV 등 현대 번역본에서도 이 구절은 생략되어 있다. 이는 후대 필사 과정에서 삽입된 설명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문 해석 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는 전통적 이해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민간적 신앙이나 전승을 반영한 기록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연못의 특징

-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
- 그러나 계속 요동치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요동칠 때 들어가야 한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기대하던 장소였으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믿어졌다. 중요한 점은 그 움직임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항상 열려 있는 은혜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경쟁적 구조였다.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혜택을 받는 체계였다. 이는 은혜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연못의 상태

① **5:3** “물의 움직임”(κίνησις 키네시스) : 물이 고여 있거나 잔잔히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며,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정체된 상태를 나타낸다.

② **5:4** “물의 움직임”(ταράσσω 타랏소) : 고여 있던 물이 요동하는 상태로, 외부적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함께 휘젓는 것.

요한복음의 신학적 초점은 물의 성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다.

3. 병든 사람들

“병”(ἀσθενέω 아스데네오)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무능한’,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과 환난을 포함한다.

이는 육체적 질병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① 소경(τυφλός 튀플로스) :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낸다.
- ② 절름발이(χλός 콜로스) :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온전한 방향을 갖지 못하는 자로, 삶의 중심이 분열된 상태를 나타낸다.
- ③ 혈기 마른 자(ξηλός 크세로스) : 심령이 메마르고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로, 신앙이 형식만 남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 ④ 38년된 병자 : 장기간 지속된 무력함과 절망의 상태로,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한계를 상징한다.

4. 병자들의 특징

그들은 모두 누워 있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수동적 상태를 의미하며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들은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기다림은 능동적 믿음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수동적 기대에 가까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다. 은혜는 인간이 조건을 갖추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베데스다의 구조가 ‘먼저 들어가는 자’의 은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이다.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 자리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 자리이다. 우리는 각자의 문제와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보이지 않는 고통과 결핍을 지닌 채 은혜를 기다리는 병자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ἐξουσία)를 성령의 ‘능력’(δύναμις) 안에서 드러내어야 하며, 정체된 심령이 깨어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타랏소>의 영적 의미이다.

“타랏소”(ταράσσω)는 단순한 감정적 고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여 정체된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요동’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령충만은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나 특정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어 드리는 삶의 상태이며, ‘가끔’(κατὰ καιρὸς) 임하는 사건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적 동행이다.

“요동친 후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μετὰ) 살아가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에 합당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

“[엡 1:19](#). [6:10](#)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힘’(ἰσχύς 이스퀴스 Power)

하나님의 본질적 능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내적 힘이며, 생명체 안에 주어진 근원적 에너지와 잠재력을 포함한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지적 능력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적 힘이다.

- ‘위력’ / ‘능력’(κράτος 크라토스 Ability)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으로서 주어진 힘이 실제로 행사되는 권세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스퀴스)과 권세가 실제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통치적 능력이다.

- ‘능력’(δύναμις 뉘나미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드러나는 능력으로, 실제 삶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힘이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 ‘힘의 위력’(κράτους τῆς ἰσχύος 크라토스 테스 이스퀴스)

하나님의 내재적 힘(이스퀴스)이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크라토스)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절대적 능력이다.

- ‘강건하여지고’(ἐνδυναμοῦσθε 엔뒤나무스데)

수동적 의미로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강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 ‘키네시스’(κίνησις)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스퀴스)과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크라토스)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아직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령의 ‘뒤나미스’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준비된 영적 상태이다.

- ‘타랏소’(ταράσσω)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키네시스)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 가운데 나타나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영적 깨어남과 능력의 실현이다.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키네시스)을 성령님께서 함께 나타내 주시는 힘. (power).

※ ‘힘’(이스퀴스)과 ‘위력’(크리토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이라면, ‘타랏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 ‘능력’(ἐνδυναμοῦντι 엔뒤나모운티) : 외부로부터 힘을 부여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상태.

- ‘안에서’(ἐν 엔) : 함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 ‘할 수 있다’(ἰσχύω 이스퀴오) : 부여된 능력으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상태. 그 힘이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으며, 그 권능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드러난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 있는 능력이다.

요 5:5-18 38년된 병자 치유하심과 논쟁

5절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 왜 예수님은 38년된 병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본문은 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다가갔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은혜이며, 동시에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됨을 드러낸다.

5: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보셨다”(εἶδεν 에이덴) :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그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신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줄”(ᾄτι 호티) :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그 상태의 원인과 배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시고”(γινώσκω 기노스코) :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상태를 간파하여 아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오래 병들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14절** 죄 때문), 또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7절** 내가 못에 가는 동안에)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은혜의 주권성을 보여 준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병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내면의 상태를 묻는 말이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체념과 무력감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며, 예수님은 그가 여전히 회복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이다.

물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무력감과 동시에 낫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함께 드러나 있다.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단순히 오래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없을 뿐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긍휼한 자 : 하나님의 긍휼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향한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푸신다>

5:14 ~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병 사이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개인적 경고이다.

어떤 질병은 죄와 직접 관련될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 이후의 삶까지 포함하는 경고이며, 치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 병의 재발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로 돌아가는 영적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육체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병은 치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며, 영적 무관심과 침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요구된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죄와 허물> 제3장 참조.

- ‘죄’ (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 𐤀𐤍𐤁 아온)

‘하마르티아’는 본래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로 강조된다(요16:9).

따라서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상태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여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까지 포함하는 관계적 이탈을 의미한다.

- ‘허물’(παράπτωμα 파랍토우마. 𐤏𐤍𐤔 궤샤)

‘파라프토마’는 “결로 떨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히브리어 ‘궤샤’는 고의적 반역과 거역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기는 적극적 불순종을 포함한다.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에는 차이가 있다.

두 개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죄’(불신)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허물’(불순종)은 삶의 영역에서 징계와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질병을 특정 허물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난을 개인의 죄나 허물로 단순화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으며,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믿음의 관점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네가 낮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준비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회복과 심판의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순종 속에서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만, 그 역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속한다.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키네시스’처럼 정체된 상태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과 능력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참된 ‘타랏소’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체된 삶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실제적인 영적 변화이다.

이 변화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며, 그 뜻을 구하고 기도로 묻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엡6:10) 강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일시적인 감동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과의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요 5:19-29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심.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다.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은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 속에서 동일한 본질과 권위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곧 예수님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으로서 동일한 사역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

특히 21, 25, 28절에서 반복되는 “죽은 자들”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포함한다. “25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이미 시작된 현재적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육체적 부활까지 포함하는 종말론적 선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생명으로 옮겨지며, 마지막 날에는 그 생명이 완전한 부활로 드러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적 생명이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의미한다. 곧 ‘선’은 행위 이전에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다.

반대로 ‘악한 일’(φᾶῦλα ποιήσαντες)은 단순한 윤리적 악행을 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는 불신의 상태를 포함한다.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믿음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궁극적 기준은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은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심판의 부활’은 이미 구원을 거부한 상태가 마지막 날에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이미 생명 안에 거하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활은 새로운 상태를 형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이다.

요 5:30-47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냄

<39-40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하여 밝히셨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곧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로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적 표징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오라는 초청이며 동시에 그 거부에 대한 책망이다.

<누구에게 ‘타랏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성령의 능력은 임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속에서 나타난다.

<벧전4:11 ~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ἰσχύς 이스퀴스)으로 하라>

이는 인간의 자질이나 재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다.

이 <타랏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시는 능력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능력이며,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요한복음 5장>

인간의 무력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드러낸다. 베데스다의 사건은 외적 조건이나 기회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핵심은 ‘타랏소’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δύναμις)이 임할 때 정체된 삶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영적 각성이다. 참된 변화는 외부의 요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다림이 아니라 동행이며, 수동적 기대가 아니라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타랏소’의 삶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며, 생명은 현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